

# 기울어진 운동장에... 박용진도 못 피한 '비명횡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함에 따라 민주당 계파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끝내 경선에서 탈락함에 따라 '비명횡사'가 대미를 장식했다는 비판이 비명계에서 고조된다. '친명횡재' 일부 인사는 자질 논란에 휩싸여 비명계는 한층 폭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시절에 박 의원과 함께 '조금박해(조용천-금태섭-박용진-김혜영)'로 불렸던 금태섭-조용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서 소신과 상식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 최고위원은 "박 의원은 방탄국회에 협조하지 않고 검수완박하겠다고 위장 탈당하는 행태에 반대하다가 (친명계에) 찍혔다"며 "어떻게 박용진 같은 바른 정치인을 내치고 온갖 논란과 막말 시비로 점철된 정봉주 교육연수원장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꼬아 붙였다.

조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은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명 홀로코스트(학살)이라는 게 확실해졌다"며

30% 페널티벽 못 넘고 정봉주에 패배... 강북을 공천권 내줘 일부 친명횡재 인사 자질 논란... 불난 비명계에 '기름' 부어 무연고 낙하산 논란 안귀령... 찾아온 동네이름 몰라 망신

"박 의원에게 훈장을 주지는 못할 망정 재갈을 물리고 손발 묶은 상태로 링 밖에 던져버리나"라고 일갈했다.

앞서 11일 오후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강북을 등 지역구 4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북을에서 박 의원은 친명계인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에게 패했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부여되는 경선 득표율 30% 감산 처분을 받았다.

11일 박 의원에 의하면 박 의원을 택한 권리당원은 51.79%(일반 여론조사 51.72%)였고 정 원장을 택한 권리당원은 48.21%(48.38%)였다. 그러나 30% 감산 페널티로 인해 박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박 의원은 강북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반면 정 원장은 상대적으로 강북을에

연고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부 '친명횡재' 평가의 인사들이 자질 논란을 빚으면서 불난 비명계 여론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안귀령 서울 도봉갑 후보는 도봉갑에 지역 연고가 없으나 3선의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지난달 23일 전락 공천을 받았다.

YTN 앵커 출신인 안 후보는 앞서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의 '외모 이상형 월드컵' 코너에서 이재명 대표와 가수 차은우 중 한 명을 택하라는 질문에 "이재명"이라고 답한 바 있다.

11일 한 매체 보도에 의하면 안 후보는 8일 도봉구 창동 신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났다. 한 상인이 '여기가 무슨 동네냐' 묻자 안 후보는 답변하지 못했다. 안 후보는 '길 건너 시장은 몇 동네냐'는 질문에

도 우물쭈물했다. 상인은 "좀 알고 다니시라. 욕먹는다"며 "여기 왔다 또 후딱 떠날 사람들인데"라고 호통쳤다. 안 후보는 상인이 음식을 권하자 "먹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봉갑에서 안 후보와 맞붙게 된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는 "아무리 무연고 낙하산 공천이라 해도 이걸 좀 너무 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후보님이 모르고 가신 그곳은 도봉갑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저희 어머니가 우리 가족 식사 준비를 위해 장을 보시던 신창시장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도봉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창2동"이라고 했다.

또 "후보님이 헛갈린 건너편 시장은 창3동의 창동골목시장으로 저와 제 아내가 주말에 장 보러 다니는 단골 코스"라며 "민주당 입장에서 도봉은 쉽게 (당선) 되니까 대충해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주환 기자 jhoh@skyedaily.com

## "민주 국회의원이 공천 미끼 수천만 원 뜯어"

도의원 도전 50대 "강득구 의원이 8년간 몸종처럼 부려" 姜의원 "사실무근... 축의금 등 잠시 빌린 돈 모두 갚아"

현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도의원 공천을 미끼로 8년간 몸종 부리듯 운동을 시키고 수천만 원을 편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강득구(61·경기 안양 만안) 의원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주말에 차를 운전하며 수행했다고 말하는 K모 씨에 의해 제기됐다. 강 의원 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본지에 보내왔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K씨는 "2015년 당시 만안지역 경기도의원이었던 강득구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도의원을 그만뒀다"며 "그의 빈자리에 도의원 출마를 원했던 나는 대학 선배인 P모 전 경기도 의원의 소개로 강 의원을 소개받았다"고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내게 수시로 '도의원 자

질이 충분하고 심지어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기도 차고 넘치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도의원 공천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이력저러한 명목을 내세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천만 원이 넘는 금원을 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이 연정부지사 시절인 2018년 1월18일 L모 씨가 호남향우회 안양시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강 의원의 요청으로 취임 기념 타월을 제작하는데 100만 원을 당시 호남향우회 안양시회 사무국장 S모 씨에게 입금했다"며 "2019년 강 의원이 국회의원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한 경선 캠프 임대료 중 일부인 200만 원을 당시 강 의원의 수행비서 A씨의 통장으로 입금했고 강 의원에게 수시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용돈을 줬는데 기억나는 것만 500만 원에 달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8년간 주말에 강 의원을 수행할 당시 내 차를 이용하면서도 기름값은 고사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한 번 준 일이 없는데 이 또한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K씨는 기자와 만나 기념타월임대료 등 입금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라며 제시했다. 그는 "강 의원이 저지른 많은 불법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있어 기사가 나가고 하루속히 수사가 이뤄져 강 의원을 처벌받게 하고 싶다"며 "나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달갑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K씨의 주장을 토대로 강 의원 측에 사실관계 질의서를 보냈다.

강 의원은 공식 답변서에서 K씨가 강 의원이 자기에게 도의원 공천을 주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K씨가 주장하는 수천만 원의 비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하고 "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도의원 공천을 미끼로 8년간 수천만 원을 내게 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K씨가 증거로 제시한 입금증과 USB. 최취경 기자

만 애경사 시에 축의금과 부의금 용도로 3만 원 혹은 5만 원은 빌린 일이 있는데 이마저도 전부 K모 씨에게 돌려줬으며 사무실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K모 전 사무국장의 실수로 누락됐기에 K 전 국장이 K씨에게 지급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 측은 "K씨가 총선을 앞두고 불순한 의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양=최취경 기자 chk@skyedaily.com

### 만평 화필살인(畫筆殺人)



**근로복지공단**

보상, 요양, 재활까지! 일하는 사람 모두!

# 산재보상 올라잇!

**신속! 공정!**

## 01 산재보상

- 출퇴근재해보상
- 업무상질병보상
- 보령급여지급

**빠른 쾌유를 돕는!**

## 02 요양서비스

- 요양지원(치료)
- 재요양 추가상병
- 공단병원 운영

**안정적인 일터복귀!**

## 03 재활서비스

- 의료재활
- 심리재활
- 직업재활